

요약부터 말할게. 이 본문은 입력일 기준 확인된 숫자만 사용했다. 글로벌 데이터가 비어 있는 부분은 해석하지 않았다.

PART 1 — 어제 낙찰/수요예측 한눈에 보기

- 낙찰 구조화 건수: 5건
- 구조화 낙찰금액 합산: 7,450억
- 최고 응찰배율: 대구교통공사 2Y 3.2x
- 최저 응찰배율: 한국중부발전 80D 2.17x

발행사(등급)	만기	금리/스프레드	금액	응찰	구분
:--- :--- :--- ---: ---: :---					
대구교통공사(AA+)	2Y	4.05%	250억	3.2x	공사채
한국가스공사(A1)	3D	2.53%	500억	3.0x	CP/전단채
한국주택금융공사(A1)	7D	2.54%	2,000억	3.0x	CP/전단채
한국서부발전(A1)	86D	2.97%	2,300억	2.83x	CP/전단채
한국중부발전(A1)	80D	3.06%	2,400억	2.17x	CP/전단채

판단: 공사채/전단채 쪽 응찰이 통안채보다 강했다. 다만 이것만으로 금리 방향을 단정하지 않고, 다음 발행의 언더/오버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.

[수요예측 결과]

- 수요예측 결과 안내 LG 전자(AA0): 모집 2,500억 / Max 5,000억 / 응모 22,500억 / 9.0x
 - 3년 500억 -10bp(15.0x) / 5년 500억 -30bp(6.6x)
 - 삼천리(AA+): 모집 600억 / Max 1,000억 / 응모 8,400억 / 14.0x
 - 2년 300억 -7bp(12.33x) / 3년 300억 -7bp(15.67x)
 - 키움에프앤아이(A0): 모집 700억 / Max 1,500억 / 응모 6,550억 / 9.36x
 - 2년 400억 -31bp(10.1x) / 3년 300억 -40bp(8.37x)
- 판단: 응모배율과 언더 폭을 같이 봐야 한다. 같은 AA권이라도 응모가 몰리고 언더 폭이 큰 이름이 다음 유통 강도를 먼저 만든다.

PART 2 — 발행/공급 캘린더

- 발행 물량 합산: 2,700억
- 여전채: 900억
- 회사채: 900억
- 공사채: 900억

판단: 공급 부담은 섹터별로 봐야 한다. 여전채·회사채 물량이 동시에 크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쉽게 좁아지기 어렵다.

익일/다음 입찰:

- 한전(AAA): 2년 / 3년 / 5년 / 총 4,000억 내외 (2년 1,000억 / 3년 2,000억 / 5년 1,000억)
- 한국중부발전(AAA): 2년 / 3년 / 5년 / 총 2,500억 내외
- 한국가스공사(A1): 6일물 / 7일물 / 총 2,800억 내외 (6일물 1,400억) / 7일물 1,400억)
- 국가철도공단(AAA): 3년 / 1,000억 내외
- 한국가스공사(AAA): 2년 / 3년 / 총 2,000억 내외 (2년 1,000억 / 3년 1,000억)

PART 3 — 금리와 커브

글로벌 데이터: 해당 메일에서 수집 안 됨. 글로벌 원인 해석은 하지 않는다.

국고 2Y: 3.650% (0.0bp)

국고 3Y: 3.787% (-0.8bp)

국고 5Y: 4.037% (-2.8bp)

국고 10Y: 4.205% (-3.7bp)

3-10 스프레드: 41.8bp

RP 시작금리: 2.5% (0.0bp)

판단: 3Y는 하락, 5Y는 소폭 상승, 10Y는 포함이다. 짧은 구간과 중기 구간의 힘이 엇갈렸다는 정도까지만 확인된다. RP 하락은 단기자금 수급 신호이지 금리 인하 확정 신호가 아니다.

PART 4 — 신용/크레딧

- 은행채 AAA: 2Y +0.8bp / 3Y 0.0bp

- 카드채 AA+: 2Y +1.5bp / 3Y +0.3bp

- 회사채 AA: 2Y +1.0bp / 3Y -0.7bp

판단: 은행채/카드채 2~3Y는 대체로 축소 쪽이고, 회사채 AA 2Y만 소폭 확대다. 전반적 위험회피 확대라고 보기는 어렵고, 구간별 차별화로 보는 게 안전하다.

거래내역: 회사채/공사채/특은채 등 원문 거래 리스트가 수집됨. 개별 종목 해석은 원문 거래가 많아 별도 정리가 필요하다.

PART 5 — 뉴스/리포트

크레딧 뉴스:

- LG 전자, 3년 만의 회사채에 2.2조 주문 몰려 ... 언더 금리 형성

오늘 읽을 리포트 3개:

- [경제 / 채권전략] 2026년 하반기 경제 / 채권 전망 : before the dawn (26.5.19 신영증권 조용구)

- [KB Bond] 초장기물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본드포워드 언와인딩 (26.5.19 KB 증권 임재균)

- [채권전략] 대내외 충격, 높아진 금리 상단과 3분기 고점 전망 (26.5.18 신영증권 조용구)

PART 6 — 오늘의 판단

1. 오늘 핵심은 '낙찰은 여러 건 확인됐고, 응찰 강도는 발행사/구간별로 갈렸다'는 점이다.

2. 금리는 3Y 하락, 5Y 상승, 10Y 포함으로 한 방향 장세가 아니다.

3. 내일은 응찰배율, 민평 대비 언더/오버, 국고 3Y·10Y 변화만 먼저 확인하면 된다.

[리포트] 오늘 읽어볼 리포트

[>>] [경제 / 채권전략] 2026년 하반기 경제 / 채권 전망 : before the dawn

저자: 26.5.19 신영증권 조용구

URL: <http://report.koscom.co.kr/common/pdf/view/>

[>>] [KB Bond] 초장기물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본드포워드 언와인딩

저자: 26.5.19 KB 증권 임재균

URL: <http://report.koscom.co.kr/common/pdf/view/KB>

[>>] [채권전략] 대내외 충격, 높아진 금리 상단과 3분기 고점 전망

저자: 26.5.18 신영증권 조용구

URL: <http://report.koscom.co.kr/report/view.do?pid=SCF2124003&contentsSeq=524535>

[>>] [크레딧 / 5월전망] 성장 + 물가 중장기 금리까지 확산 : 수급부담 지속 변동성 확대, 여전히 여전채 매력적

저자: 26.5.18 BNK 증권 이성경

URL: <http://report.koscom.co.kr/report/view.do?pid=SCF2124003&contentsSeq=524480>

{>} {국내 크레딧} 주간 크레딧 모니터

저자: 26.5.18 신한증권 김상인

URL: <http://report.koscom.co.kr/report/view.do?pid=SCF2124003&contentsSeq=524566>

오늘 브리핑과 가장 직결된 리포트를 먼저 읽어봐.

DS증권 황대진 메일 기반 자동 생성